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0.60원 상승한 1,299.10원에 마감

3일 환율은 전일대비 0.60원 상승한 1,299.1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0.60원 상승한 1,299.00원에 개장했다. 미 고용지표 호조 영향에 상승 출발한 환율은 역외 달러-위안 하락에 상단이 제한되었고 수출업체 네고물량 우위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오후 장에서 환율은 달러인덱스 상승과 국내 증시 하락세에 1,300원대로 반등했으나 장 후반 보합권까지 하락하며 1,299.10원에 마감했다. 장중 변동 폭은 7.7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11.43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1299.00

고가

1302.50

저가

1294.80

종가

1299.10

평균환율

1298.8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905.50

고가

912.86

저가

902.34

종가

912.77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1420.25

고가

1424.14

저가

1416.74

종가

1422.27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보장환율(수출)

-1.68

3M

-6.6

6M

-15.2

12M

-29.13

결제환율(수입)

-1.34

-5.18

-12.31

-25.96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위험선호 둔화에...1,290원 후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1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299.10) 대비 0.35원 상승한 1,297.3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위험선호 둔화 영향에 상승이 예상된다. 최근 견고한 미 경제지표에 연준의 연착륙 기대가 고조되며 미국 10년물, 30년물 국채금리는 각각 9.16bp, 11.82bp 상승했다. 미국 장기금리 상승에 성장주 투자심리 회복이 제약되며 미국 3대 증시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이같은 위험선호 둔화 심리 확대에 원화 약세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금일 환율 상승에 압력을 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수입업체 결제수요 대기 물량과 국내증시 외국인 대규모 순매도가 역송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은 금일 환율 상승 분위기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월 네고 물량과 당국 미세조정 경계 등은 상단을 경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294.40 ~ 1304.4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491.77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30원 ↑
	■ 美 다우지수 : 35215.89, -66.63p(-0.19%)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00.43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5377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